



송 광 섭
이투데이 증권부장

베란다조경

도시민의 작은 휴식 공간 '발코니' 와 '테라스'



베란다에 정원을 꾸밀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방수 및 배수처리다. 베란다는 대부분 타일로 마감돼 있거나 바닥재를 깔아 높이가 거실과 같다. 때문에 타일이나 바닥재 위에 화단을 설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누수 위험이 있어 반드시 방수 시트를 깔고 배수구를 따로 내줘야한다. 물이 잘 빠지도록 플라스틱으로 된 배수판을 깔고 그 위에 원예용 부직포를 덮어 토양이 배수구로 빠져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흙은 실내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멸균된 인공토(펄라이트, 피트모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 흙을 갈 때는 배수용 인공토를 바닥에 먼저 깔고 배양용 인공토와 배양토를 섞어준다. 인공토는 100l 한 포대 기준 7,000~9,000원 수준이며 배수판은 1개(50cm²)당 2,000~3,000원 정도다. 하중을 고려해 가급적 튼튼한 것을 고르는 게 좋다. 식물은 당장 보기 좋은 것보다 1년 내내 보고 즐길 수 있는 식



물을 골라야 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오래 꽃이 피거나 향기가 있는 식물들을 심는 게 보다 효과적이다. 햇빛이 드는 양지에는 히비스쿠스, 다투라, 울린안다 등을 심는 게 좋은 방법이다. 식물 식재 시 중심목을 중심으로 키 큰 순서대로 심되 수반 및 고품목을 배치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 준다. 물 주는 주기가 비슷한 식물끼리 심는 것이 식물 식생에 좋다. 키 큰 식물의 잎 모양과 그 아래에 배치되는 잎모양이 서로 대비되게 배치하면 어색하지 않게 조화로운 모양이 된다. 넓은 육조나 나무 상자들의 대형 용기를 이용해 배란다 정원을 꾸미는 방법도 있다. 용기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다. 사과 껍질 크기의 플랜트 박스에 갖가지 식물을 심는 이동식 정원도 있다. 키가 큰 식물과 작은 식물을 한데 모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고, 박스 아랫부분에 바퀴가 달려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우리말로 노대라고 불리는 발코니는 외벽에 돌출돼 공중에 뜬 형태로 있다.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곳에 화분을 놓거나 소정원을 꾸미면 본인뿐 아니라 밖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신선함과 청량감을 줄 수 있다. 유럽에 가면 대부분의 건물에 발코니가 있다. 또 발코니마다 화분이 놓여져 있고 일부는 나무 상자 등을 이용해 화단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 발코니에는 아래로 흘러내리는 식물을 심는 게

효과적이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로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아파트 최상층에 있는 테라스는 인공지반이기에 토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뿌리가 깊지 않은 천근성 수종과 지피성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좋다. 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잎이 작고 조밀한 침엽수종으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라스는 주민들의 옥외 휴게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원 조성 시 조망권 확보와 동시에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건물쪽과 연결된 공간에 목재 데크를 조성하면 실내 공간이 실외로 확장되는 느낌을 준다. 데크 설치시 이용공간이 더 넓어진 느낌을 준다. 또 데크와 접해 있는 곳에는 지피 초화 식물을 식재하고 데크와 먼쪽에는 사철나무 등 차폐효과를 줄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요령이다. 테라스는 외부 공간이기에 연못과 분수를 설치할 수 있다. 분수를 설치하면 생동감을 높일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조명 시설을 갖추면 야간에도 자연의 정취와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물화와 돌하루방, 장대석 등 여러 가지 자연석을 함께 배치하면 더욱 좋다.

묘지를 가족 공원으로 만들어라



묘지 조경 문화도 조만간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이나 묘지는 혐오시설에 해당돼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 매장풍습이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분묘는 약 2,000여 만 기로 추산된다. 면적으로는 약 998km²에 달한다. 국토면적(9만9600km²)의 1%, 서울시(605km²)의 1.6배 규모이다. 해마다 18만기의 묘지와 납골 묘가 조성돼 여의도 면적(840ha) 만큼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화장보다는 매장 문화가 대세인 미국은 일반 주택가보다 주변환경이 더 쾌적한 추모공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모공원이란 화장장이나 묘지에 녹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이다. 유럽을 가보면 동네 어귀에 잘 정돈된 공원 묘역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놀이공원 형태로 꾸며져 있기에 누구나 부담 없이 공원을 찾아 산책을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이 같은 유형의 유럽형 봉안 묘역이 등장했다.



'녹지를 확보하라'공원화 사업 활발

울산대공원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종합공원이다. SK주식회사는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6년 까지 10년간 1,000억 원을 들여 110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 울산광역시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크게 자연학습지구, 환경테마놀이지구, 가족피크닉지구, 청소년시설지구 등으로구분돼 있고, 장미계곡, 테마초화원, 어린이 동물농장, 나비원, 환경테마놀이시설,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테마공간으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테마놀이시설은 시설 및 조형물 설치를 통해 놀이과정에서 몸소 자연 현상의 원리와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넓은 잔디밭으로 조성된 잔디마당은 서비스 동선과 잔디마당 사이의 식재부를 마운딩하고 산벚나무, 금목서, 화관목 등을 심어 공간을 차폐하고 경관적 가치를 높였다. 야생초화원은 산과 들에서 자라는 야생초본을 식재한 공간이고, 암석원은 석축이나 돌담, 바위틈 등 돌이 많은 건조한 토양에서 자라는 건생식물들이 식재돼 있다. 선유도는 신선이 노니는 봉우리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의 아름다운 선유봉이 있는 작은 섬이었다. 오늘날에는 일제 시대의 암석채취로 옛날의 선유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한강 위에 떠있는 자연학습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생태공원으로 변모했다. 정수장 시설이 들어서 있던 공간의 흔적을 일부 남겨 수생식물 공간으로 조성했다. 선유도 공원은 다른 어느 공원보다 폐허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검게 녹슨 기둥과 파이트, 거친 질감의 콘크리트 표면은 분명 색다른 체험을 선사한다. 정수장의 파이프라인 등을 놀이공간이나 습지로 꾸미고, 기존의 벽과 기둥 등을 그대로 활용해 심지적 가치를 높인 조형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길이 469m의 한강최초의 보행 전용교량인 선유교가 선유도 공원으로 연결돼 있다. 무지개 형상의 아치교인 선유교는 야간 조명 시 그 아름다움을 더한다. 분명 선유도 공원은 한국조경설계의 이론적-실천적-미학적-대중적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수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선유도 공원은 산업시설의 부지와 구조물을 그대로 남기면서 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재활용함으로써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조경설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여의도 공원과 서울숲은 한국 조경설계를 언급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여의도공원은 1996년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을 서울의 중심에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조성됐다. 옛날 여의도는 나외주, 너섬, 양마원으로 불리던 것으로, 소수의 주민들이 밭을 일구거나 말 같은 가축들을 키우면서 살던 곳이다. 일제 침략기 군대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1916년 한국 최초의 군용비행장으로 건설됐고, 광복 후까지 국제공항으로 사용됐었다. 여의도 광장은 김일성 광장보다 더 크게 지으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1년 완공됐다. 박 전 대통령은 광활한 이 광장을 5·16광장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군사 퍼레이드와 대규모 반공 쫓기대회 등을 열게 했다. 그러나 서

울시가 아스팔트로 덮여있던 이곳을 10만 평 규모의 숲이 우거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고, 마침내 1997년 4월 광장의 아스팔트를 걷히게 된다. 서울시의 몇 안 되는 개발 가능지 중의 하나인 독섬지역 개발은 최근 강남북 균형 발전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의 센트럴 파크 서울 숲은 지난 2005년 6월 일반에 개방됐다. 성동구 성수동 1가 685번지 일대에 35만평 규모로 조성된 서울숲은 규모면에서 여의도공원의 다섯 배가 된다. 자연상태에서 고라니와 사슴이 뛰노는 생태 숲도 조성됐다. 🌳

